



“부활에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2019 년 10 월 7 일 19 시 15 분(현지 시간)에  
15 년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마리린 데라라몬 수녀님이  
뉴마닐라의 수련소(필리핀 퀘존 시티)에서  
향년 42 세로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와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성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이신 거룩하신 마리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전 존재를 당신께 봉헌하고 드리며 축성합니다. 사랑하는 마리린 수녀님에게 드리는 이 기도는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수녀님의 신앙과 마음 안에 간직했던 매일의 봉헌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마리린 수녀님은 겸손하고 신앙심이 강한 가정의 5 형제 중 맏이로, 1976 년 12 월 15 일에 필리핀 레이테 힌당에서 태어났고, 같은 해 12 월 26 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1 년 1 월 7 일 링가옴으로 입회를 했고 다음 해 9 월 3 일 퀘존 시티에서 수련기를 시작하여 2004 년 9 월 3 일 첫 서원을 했습니다. 2009 년 9 월 3 일 이무스 주교좌에서 이무스의 주교,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님의 주례로 종신서원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 수도회와 마리린 수녀에게 항상 목자로서 우정을 보여 주셨으며, 9 월 30 일에는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마리린 수녀님은 첫 서원 후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 청년 사목을 위해 탄자로 파견 되었습니다.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 이무스 유기서원소에서 파트 타임으로 사목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 로마 비아 트라베르사리에서 종신서원을 준비하며 카리스마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2009 년 필리핀으로 돌아와 이무스 유기서원소에서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청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2012 년 청년 사목을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 알레티 센터에서 하는 “토마스 스피드릭 추기경”의 영성신학 아태리얼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아카데미를 마칠 무렵 에지오 알레티 센터의 지도 신부인 마르코 루프닉 신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수도회에 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적 모습으로 존재하는 양성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리린 데라라몬 수녀가 양성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공부하러 올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로마 비아 트라베르사이 공동체에서 일 년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2018 년 6 월 필리핀으로 돌아와 디고스 공동체에서 잠깐 사도직을 했으나 이미 암이 전이된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12 월에 뉴마닐라 수련소로 돌아 왔습니다.

마리린 수녀님은 우리에게 메이란 애칭으로 불렸으며, 겸손하고 자신을 내어 주었으며, 미소 띤 얼굴로 고통을 받아들였으며,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으며 주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영신수련 중에 동반하던 사람의 마음을 정중하게 대하며 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병 중에도 성부의 특별한 방문으로 받아들였으며, 세례 때 받았던 새로운 생명의 표지들을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자기 삶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이 수녀님은 투명하고 단순함으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참으로 복음적으로 무장해제한 겸손입니다. 그의 곁에 있는 누구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하느님의 생명을 감지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대 속에서 살 때의 단순함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읽는 특별한 선물을 가졌으며 그 것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메이 수녀님의 투병 기간 동안 기도와 사랑과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해 주셨던 수도회의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젊은 수녀에게 생긴 갑작스런 병이 빠스토렐레들 뿐 아니라 우리와 기도로 함께 하며 다양한 도움을 준 메이 수녀를 알고 있던 많은 수도자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일으킨 강한 친교의 표지들을 자주 보았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지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메이 수녀님을 사랑했고 그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마르코 신부님과 알레티 센터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 드리며, 메이 수녀님이 살고 증거했던 빠스토렐레의 카리스마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 투병 기간 동안 가까이서 의지가 되어주고 메이를 만나러 필리핀에 와 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쾌유를 위해 치료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사랑과 인내로 함께 해준 아르세니아 수녀와 필리핀 수녀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메이 수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수녀님들을 통하여 느꼈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복되신 로사리오의 마리아 기념일의 복음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2008 년 종신서원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은 나의 구세주 안에서 기뻐 됩니다. 그분은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내가 무엇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얻겠습니까. 마리아의 노래는 이 몇 년 간 나의 하느님에 대한 체험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느님은 놀라움으로 나를 가득 채우셨고 그분의 부르심과 충실함과 사랑으로 놀라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얻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 없음과 나의 한계, 내 현실 안에서 고통들과 실패들 그리고 여정 안에서 기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살아있는 현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11 년 후 마르코 루프닉 신부님이 하신 말들이 수녀님의 말을 확인하고 풍요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메이 수녀님, 우리는 여정의 한 부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교수가 되고, 특히 성령 안에서 당신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성부의 목마름으로 살았는지 증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지성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요구된 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동양의 얼굴은 하느님에 의한 생명의 선물에 대한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사랑 받는 딸의 것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성령 안에서 어머니가 되는 성소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을 -우리들도- 돌보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안에서 우리들의 계획을 따라 길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치기 위해 오신 자녀의 삶을 수용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침묵과 지혜로운 여성으로서 증거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은 당신을 사로 잡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메이 수녀님, 친교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데우고 이끄는 불꽃이 되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위한 영감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지나갔던, 사람의 영원한 기억처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모든 것들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남아있게 합니다.

성부의 자비에 마리린 수녀님을 말기며, 병중에 자주 반복했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사랑 받는 딸이며 남은 날들이 하루가 적거나 더 많거나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생명을 끌어안고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메이 수녀님, 당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의 필요와 당신의 수도 가족과 당신이 사랑했던 당신 삶과 함께 했던 이들의 필요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당신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2019 년 10 월 7 일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수도회 창립일에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따 사르미엔또 부엔떼스